

사설

다함께 참회합시다

“스님 돈따서 무엇에 쓰실려구요?” 어느 주간지가 승려도박사건을 보도 하면서 불인 표제이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참으로 참기 어려운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국가경제가 벼랑위에 서 있고, 수해까지 겹쳐서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각계각층이 힘을 합하고 있지 않은가. 어린 아이들의 코뿔은 돈까지 수해의 연금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 어쩌서 일부 스님들이 깨달음과 중생구제 대신 도박을 화두로 삼았는지 정말 알 수 없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도박스님들이 검찰에 구속되던 날은 바로 불난리로 온국민이 시름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저녁 9시에 보도된 승려도박 뉴스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다행히도 불교계 안에서는 즉시 참회와 목사의와 함께 자제적인 정화운동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와 불교계장학재단 학생회와 동문회, 동국대 석림회 등에서 참회성명서를 냈다. 전국불교운동연합, 실천승가회, 조계사청년회, 경불련, 대불련 등에서 잇따라 참회문과 함께 삼보정재의 유용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제 우리 불교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

첫째,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종단의 호법기구를 통하여 철저한 자체 진상조사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엔 검찰에 적발된 그룹 외에도 이와 유사한 도박성 놀음판이 벌어지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솔솔머신업소나 이와 유사한 오락실에 자주 출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부끄러

운 일이라고 해서 숨기면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 법이다.

둘째, 사찰의 재무관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스님들이 삼보정재를 도박같은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원천은 사찰재정관리가 허술하다는 데 있다. 특히 보시금의 관리가 주지나 재무 등 일부 스님들에 의해 밀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물론 종헌종법에 신도회 대표 등이 사찰운영위원회 같은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부대중이 사찰재정의 투명화와 공명화를 기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부 종단이나 포교당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모델을 종단 차원에서 제시하고 시행을 강제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셋째, 출가사문의 청정성을 회복하고 실추된 불교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종단 자체의 정화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그동안 종단의 공식기구나 불교시민단체 등에서 여러번 제기되었던, 승종을 문란시킨 타락상의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범불교적 정화기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각 교구본사나 말사 또는 단위 사찰별 정화위원회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종단 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강력한 호법, 정화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본래의 부처님 출가정신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종단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설포교당 실태파악

조계종포교원 무속행위등 실사 자격박탈키로

조계종포교원이 사설포교당 및 무속행위를 하는 포교당의 실태 파악에 나섰다. 포교원은 17일 전국포교사지단에 조계종 포교사의 사설포교당 개설 및 무속 등 비불교적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을 지시했다.

포교원은 포교사지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확인 작업을 거쳐 문제 포교사에 대해서는 포교사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포교원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부산 유마힐포교원의 신도 상해치사 사건 발생에 따른 것이다. 사설 포교당은 조계종포교사가 포교당을 개설하고 종단에 등록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고 포교원은 밝혔다.

포교원은 이와 함께 향후 포교사 배출 및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비불교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총무원장선거 출마” 설조스님 비공식표명

전 불국사주지 설조스님이 가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님은 20일 교계 기자들을 만난 비공식 석상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선거를 위해 일련의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의 출마의사 발표는 스님과 관련한 재심호혜원이 연거푸 상환에 나온 것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ania.com)

로 했다. 또 포교사 배출원인 불교교양대학의 관리를 강화해 교육과정부터 양질의 포교사를 배출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다는 계획도 함께 추진한다. 종단에서 제시한 필수과목의 반영, 박사학위 소지자 및 중견스님의 교수인력 확보 등 교육여건이 우수한 곳을 중점 지원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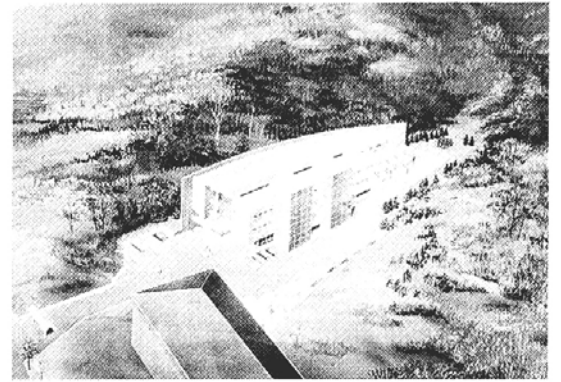
김관태 포교과장은 “과거 타종교와 비교해 포교인력의 숫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다수의 포교사를 양성했으나, 이제는 양질의 포교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현재 조계종은 재가포교사가 개설한 포교당의 종단등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조계종에 등록된 포교당 1백20여곳 가운데 스님 명의로 등록된 경우도 있어 사실상 재가포교사가 개설한 포교당도 상당수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포교원은 재가포교사가 개설한 포교당중에도 포교와 신도교육에 기여하는 곳이 많아

일률적인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며, 재가포교사가 개설한 포교당의 종단등록 허용도 검토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9월10일 기공식을 갖는 전국비구니회관 조감도.

전국비구니회관 세운다

9월10일 강남 수서동서 기공...2001년 완공

전국비구니회관이 마침내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는 9월10일 오전 11시 강남구 수서동 744 비구니회관 부지에서 석주 조계종 원로회의부의장 원주 총무원장을 비롯 각 종단 대표와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격추진 5년여만에 기공사를 올린다.

비구니회관의 근본도량이 될 비구니회관은 1천2백40평 대지

에 연건평 2천5백58평으로 지하 2층 지상3층으로 조성된다. 회관은 현대식 건축물로 반야용선(배)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안에는 대법당을 비롯해 교육관 대강당 연회장 강의실 대법당 체력단련과 불교문화실 도서관 탁아실 등이 들어선 종합회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된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비구니회관은 2001년 준공될 예정이다. <관련 인터뷰 3면> 위영란 기자 (yryui@buddhania.com)

강북구청장에 사과 요구 종교편향대책위

종교편향대책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성경선서' 취임식으로 물의를 빚은 장정식 강북구청장에 대해 보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13일 장 구청장이 강북지역사민연합회가 방문한 자리에서 사과를 한 바 있으나 종교편향대책위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는 이후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특정종교 편향문제 해결에 주력하기로 하는 한편 조계종과 협의하여 종교편향 및 차별행위 예방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원명선원 훼손 불교에 유감”

기독교협, 전국 교회에 재발방지 권고문

제주 원명선원 훼손사건과 관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조계종총무원장 앞으로 '유감표명' 공문을 보냈다. 교회협의회는 7일자로 보낸 '제주 원명선원 훼손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의 건을 통해 '원

명선원 훼손사건은 개인이 저지른 일이지만, 기독교신자임을 확인한 이상 조계종단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원교단의 전 교회에 권고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교회협의회는 또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타종교와의 협력관계를 위해 조계종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신교계가 훼손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운 기자

신도단체 등록령 입법 예고

조계종, 등록단체 확대키로

조계종포교원은 17일 신도단체의 종단등록 자격과 절차 등을 규정한 '신도단체 등록 및 관리령'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총 18조, 부칙 3조로 구성된 이 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단등록 신도단체의 확대- 기존의 전국 단위 및 10개 지부 이상의 단체에 한정했던 종단등록 신도단체를 의료인 법조인 교수 교사 언론인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장애인 등 특수계층의 신령단체도 종단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취소 요건의 강화-종단 지침의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종단의무 불이행 등으로 규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종단등록 단체에 대해서는 조계종 명칭 사용, 사업추진시 종단과 공동추진 및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미 등록된 신도단체는 이 권에 제정된 종령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성운 기자

전문포교사팀 '바쁜 활동'

아이타화-노인복지·장례의식 봉사 전국불자회팀-군부대 방문 법회 열심

지난 6월 구성된 조계종 전문포교사팀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노인복지와 장례의식 봉사 활동을 펼치는 아이타화(회장 유재용), 15명의 회원들은 교통비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사례도 받지 않고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즉시 달려간다. 7월 7일 서울중계동 김씨 상가의 장례봉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섯 차례 상가를 찾아 영가의 극락

왕생을 빌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활동을 펼쳤다. 매주 한차례 안국동 동산법당에 모여 장례봉사에 필요한 각종 의식 및 영송교육도 받는다. 두 달에 한번은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 황금어장에 뛰어난 전국불자회팀(팀장 강노식)도 7월 중순 팀내부 결속을 다진 후 송추 덕정 등 경기도 북부의

3개 군부대를 방문해 담당포교사를 배치하고 본격적인 법회활동에 들어갔다. 14명으로 구성된 이 포교팀은 일단 인원의 한정으로 3개 부대 포교활동에 주력하기로 하는 한편 군법사와 인근지역의 스님들과의 연계를 강화해 포교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구지역 교도소 포교팀, 대전 무수회(사회복지) 등이 활동보고서를 제출했다. 포교사단 임동현 사무국장은 "29개 포교사팀의 보고서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9월중 팀장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포교방법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사단은 보고서를 분석, 지침서 형태의 포교자료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동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 서풍짜리 기와때문에 천년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전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기와, 풍산 한식 동기로 보존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대표회 대용한장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成源産業 H.P (011)445-7811 아간 (02)502-7811,7827

현대만평 박구원 737-8881

현대만평



부처님이 무섭지도 않나?

국난극복을 위한 — **제2회 연꽃 대축제** —

10만 연등불사 · 수륙천도 영산대법회 · 방생법회

진흙(사바세계)에 뿌리를 두되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늘(깨달음)을 향해 피어나는 연꽃! 세계 최대규모(10만평)인 백련지에 화려한 연화장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10만평의 연지에서 10만등의 등불을 밝히고 10만 영가를 천도하는 영산 대법회 및 방생법회에 사부대중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 일정	행사 명
▶ 첫째날 (9월 10일 목요일)	· 마정수기 법회 · 법요식 및 불교TV 32스페셜 공개방송 · 개막 점등 및 불꽃놀이
▶ 둘째날 (9월 11일 금요일)	· 허수아비 행렬 · 방생법회 · 제2회 연꽃가수왕 선발대회 (예선)
▶ 셋째날 (9월 12일 토요일)	· 마정수기 법회 · 제1회 찬불가 경연대회 · 마당극(연꽃낭자전)
▶ 넷째날 (9월 13일 일요일)	· 제2회 가족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 수륙천도(수해 희생영가) 영산대법회 · 폐막행사

▶ 일시 : 1998년 9월 10일(목)~9월 13일(일) (4일간)
▶ 장소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복용리 (회산 연꽃방죽)
▶ 증명 : 서용, 보성, 청화 큰스님
▶ 고문 : 월주, 인곡, 운덕, 대호 큰스님, 충지화 통리원장
▶ 방행위원장 : 천운 큰스님
▶ 지도위원 : 광주 전남지역 각 사암 연합회장

행사문의 TEL : 0631)282-6813 FAX : 0631)282-6815

연꽃대축제운영위원장 정 평 합장
무안불교사암연합회장

마정수기 영가천도 국제 대법회
생(生)과 사(死)가 돌아남을 실증하신 티벳의 화신 팔 잠양 왕축 텡징 린포체의 수행스님 열분

❖ 참여안내 ❖
■ 일시 : 불기 2542년 9월 10일~9월 30일
■ 장소 : 회산 연꽃방죽 대법당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승달산 마곡사 백련사(회산연꽃방죽)
■ 후원 : 무안불교사암연합회
■ 문의 : (0631) 282-6813

■ 주최:무안불교사암연합회 ■ 주관:무안군 ■ 후원: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전라남도, 무안농지개발조합, 불교TV, BBS광주불교방송